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4, 2009. 11, pp. 355-380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장 경 은
(경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빈곤노인을 기준표집방법으로 총 16명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는 27개 주제, 10개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4개의 범주는 '죽음으로 향해 가기', '초라해지는 마음', '험한 인생살이', '삶의 끈을 지켜나가기'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합해볼 때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본질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을지언정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발견되었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은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고, 생계비가 최소한의 생존비용임을 보여주었고, 심한 죽음불안을 나타냈으며, 家 중심의 유교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이에 빈곤노인복지정책은 이들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활동의 촉진,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강화, 죽음준비교육의 실시, 빈곤노인복지정책의 매뉴얼 구축 등으로 제시되었다.

주제어: 빈곤노인, 노화, 현상학적 방법, 빈곤노인복지정책

1. 서론

인간이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은 당연한 삶의 이치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를 지나 2008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통계청, 2008)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확장되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

* 본 연구는 장경은의 박사학위논문(2008. 12.)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개인과 사회가 노화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심은 '어떻게 늙을 것인가?'로 구체화되고 있다.

노화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을 맺는 유기체의 퇴행적인 변화이다.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의 변화과정을 포괄한다(Birren, 1964: 10). 이러한 관점은 노화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동시에 쇠퇴, 상실 및 죽음 등을 의미하여 늙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새로운 노화의 관점인 성공적 노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었다. 성공적 노화는 노인이 역연령적 측면에서는 늙었지만 건강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활동성을 가져 노년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인간이 경험하는 노화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과정도 전적으로 긍정적인 과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화의 진정한 의미는 노인이 살아온 삶의 배경과 경험 속에서 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노화경험이 개인의 관점, 사회문화적 배경, 경험, 삶의 태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또한 그 의미가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한국노인이 빈곤한 상황에서 늙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이미지는 언론매체들을 통해 고된 일상 속에서 깊은 주름살과 무언가를 바라는 의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삶의 실패자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래서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 빈곤노인이 늙어가는 경험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빈곤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빈곤노인 자신들이 경험하는 노화의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을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과 경험 속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빈곤노인복지정책은 불특정다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에서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노인복지정책으로, 이들이 가진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노화경험을 강화시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제는 고령화사회에 노인계층별로 분화된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빈곤노인을 복지대상으로 하는 빈곤노인복지정책이 요청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노인이 처해 있는 상황적 맥락에서 이들의 노화경험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를 통해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빈곤노인의 시각으로부터 생생한 노화경험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적합한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문헌고찰

1) 노화의 의미

노화는 단선적인 과정이기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노화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노화의 관점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를 말한다.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노쇠의 의미를 가지고, 심리적 노화는 변화하는 심리내적인 기능, 노년기의 성격 특성, 생활적응 등을 통해 나타나며, 사회적 노화는 노년기로의 전환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상황의 변화 등을 말한다. 전통적인 노화의 관점은 세 영역의 노화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화를 전체적으로 제시해준다. 그러나 이 관점은 노인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쇠약, 심리적 무기력, 사회적 의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새롭게 주목받는 노화의 관점에는 성공적 노화와 문화적 맥락의 노화가 있다. 먼저, 성공적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성공적 노화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성공적 노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Baltes and Baltes, 1990; Rowe and Kahn, 1997; Crowther, Parke, Achenbaum, Laimore and Koening, 2002; 성혜영 · 조희선, 2005). 이 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Rowe와 Kahn(1997)으로 노화를 보통의 노화와 성공적 노화로 구분하고, 성공적 노화를 "질병과 장애가 없고 정신적 기능이나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좌우되고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노화의 기준은 성공적으로 늙은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으로 구분하여 노인집단간의 차별을 유도해 성공적 노화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을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Holstein and Minkler, 2003: 791; 정경희 · 한경혜 · 김정석 · 임정기, 2006: 75). 또한 성공적 노화가 개인의 책임을 내세우는 개인주의적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노화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받기도 한다(Riley, 1998; 정경희 외, 2006; Clarke, Griffin, and PACC Research Team, 2008).

또 다른 측면의 성공적 노화는 그 사회의 노인들이 살아온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성공적 노화의 경험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Toress, 2002; 김미혜 · 신경림 · 강미선 · 강인, 2004; 최혜경 · 백지은 · 서선영, 2005; 김경연 · 정여진, 2006). 노인이 살아온 삶의 맥락에서 성공적 노화의 경험과 의미를 밝히는 것은 성공적 노화를 개인의 상황과 인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를 위한 성공적 노화이어야 하느냐로 귀결될 수 있다. 빈곤노인은 가난, 질병, 가족관계의 단절 및 해체 등으로 인해 비빈곤노인이 경험하는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장애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노인이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성공"의 가치가 개입된 "성공적 노

화"보다는 그들의 전반적 노화경험을 처해진 상황과 맥락에서 폭넓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문화적 맥락에서 노화를 보는 관점이 있다. Beauvoir(홍상희·박혜경 역, 2002: 23)는 노년을 총체성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단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Blakemore(1997: 28-30)는 문화적 인종적 요인들이 노화경험과 정책입안자의 노인에 대한 욕구 인식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때 문화는 구별되는 생활방식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구조 등과 같은 사회제도, 종교적 신념과 가치, 사회행동과 관련된 선호, 식이요법 그리고 옷 입는 것 등을 포함한다. Willigen와 Lewis(2006: 137-138)는 문화적 노화의 핵심을 한 사람이 삶을 경험하는 생애과정이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파악하여 문화적 맥락에서의 노화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기능의 상황적 틀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문화적 맥락에서 노화를 조명해보는 것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구성물의 결과로서 노화를 보는 것으로 개인의 연령, 경제수준, 지역사회별, 나라별 등에 따라 노화경험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을 이와 같은 관점에 접목시켜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노화경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빈곤노인과 노화

빈곤노인은 저소득층 노인이라고도 불리지만 본 연구에서는 빈곤노인을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의한다. 그 이유는 65세 이상은 사회복지제도의 급여를 받는 보편적인 역연령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이 비수급자노인에 비해 경제생활, 건강, 정서적 지지 등 모든 삶의 조건이 더 열악하므로[1], 이들의 노화경험에 더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빈곤노인은 노인이면서 빈곤하므로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빈곤문제에서 파생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빈곤노인이 늙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노화의 이해와 더불어 빈곤하다는 특성을 반영한 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빈곤노인의 노화에 관한 이해는 기존의 빈곤노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하여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빈곤노인은 노화과정에서 빈곤이 강화되는 특정한 경험을 한다. 백학영(2006)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배우자와의 관계단절, 자녀의 사업실패, 불안정한 경제활동, 가족지원체계의 약화 및 상실 등으로 빈곤한 상태가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희경(2005)은 여성노인의 빈곤이 사별이나 발병 등 특정 생애사건 등으로 더욱 악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박영란(2004)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기 때문에 결혼관계 해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상실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하고,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문화적 요인에서 여성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빈곤노인의 빈곤경험은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생애사건의 영향을 받은

1) 최희경(2004)은 공공부조 수급 빈곤노인가구가 비수급 빈곤노인가구에 비해 학력, 건강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주로 노인 단독으로 살면서 가족이 없는 노인들에게 공공부조가 지급된다고 제시하였다.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전 생애에 걸쳐서 빈곤하게 살아온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빈곤경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나 빈곤하게 늙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빈곤노인은 노화과정에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김기태・박봉길(1998)은 개인에 따라 저소득노인 가운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으나, 전체 저소득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일반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은 저소득층노인은 중산층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양적 연구로 진행되어 빈곤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빈곤노인들 중에서 적은 수이지만 생활만족도가 높은 이들의 개별적 성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빈곤노인이 겪는 일상생활경험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김주성(1999)은 영세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의 의미를 '힘의 상실에 대한 자각',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 '가족에 대한 애증', '삶을 수용하려는 노력' 등의 주제군으로 파악하여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심문숙(2007)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의 의미를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자책함', '현재의 삶이 타인에게 부담되는 존재라고 느낌', '질병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고 막막함' 등의 범주로 제시하여 독거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빈곤노인의 일상생활은 힘들고 걱정스럽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간호학에서 주로 이루어져 질병과 관련된 차원에서 빈곤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빈곤노인이 사회문화적 구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빈곤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일상생활을 불편없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5)은 빈곤노인이 '성공적 노후 요소 결핍형'에 많이 포함되어 성공적 노화를 하는데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제시하였다. 최혜경 외(2005)는 하층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내 한 몸 추스르는 삶'으로 제시하였다. 김경연・정여진(2006)은 성공적 노화의 요소가 빈곤노인집단에서는 건강, 경제, 긍정적 사고에만 집중해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빈곤노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기준으로 제시되는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들이 처한 삶 속에서 노화의 경험을 찾는다면 노화의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화의 성공적 접근도 가능하리라 본다.

종합하면 빈곤노인이 늙어가는 경험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선행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노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노화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주화된 변수 중심의 양적 분석보다는 다양하고 폭넓은 설명이 가능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직접적인 경험의 체계적인 분석이다(전영길 역, 1995: 133). 이 연구방법은 사람들이 현상을 경험하는 방법을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서술하고 밝히고 해석하여 상황적 맥락 속에서 경험의 내적 의미구조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본질에 대한 자기 이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이영희, 1993: 270). 이러한 측면은 사회복지에서 인간존엄성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관점을 지향하고 환경과 개인 간의 총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는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2) 연구절차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기준표본추출(criterion sampling)[2]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모든 참여자들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성별, 연령 및 주거유형(일반주택, 영구임대아파트, 노인의 집)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노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총 16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의 윤리적 고려는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자가 연구참여동의서 내용을 한 줄씩 천천히 읽으면서 연구목적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참여자의 면접내용 및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여 확보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예비조사, 심층면접, 현장일지, 복지관의 연구참여자 관련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된 자료수집방법인 심층면접은 2008년 4월 중순에서 9월초까지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횟수는 최소 3회에서 최대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노화경험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중단하였다. 면접시간은 1회에 30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신뢰형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모든 심층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디지털레코더를 사용하여 녹음되었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사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참여자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김분한 외, 1999)을 두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1978: 59-62)을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연구참여자의 인

2)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표본추출방식 중에서도 모든 참여자들이 특정 현상을 필수적으로 경험하여야 하기 때문에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준표본추출이 적절하다(조흥식 · 정진욱 · 김진숙 · 권지성 역, 2005: 150)

터뷰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 명확한 의미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 주제묶음, 범주를 도출하여 노화경험의 총체적인 기술을 통합하여 근본적인 구조로 진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밝혀진 연구결과에 대한 맥락적 확인단계를 거쳐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2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엄격성은 Lincoln와 Guba(1985: 300)가 제시한 신빙성(credi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그리고 확증성(confirmability) 등을 적용하여 신뢰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였다.[3)]

4. 연구결과

1) 빈곤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참여자는 총 16명 중 남성은 4명, 여성은 12명이었다. 연령은 68세에서 84세까지 분포하였고, 주거유형은 영구임대아파트에 6명, 일반주택에 6명, 노인의 집에 4명이었다. 거주형태는 독거가 8명, 노인의 집의 노인와의 동거가 3명, 자식이나 손자녀와 동거가 3명, 부부동거가 2명으로 나타났다. 자녀여부에서는 자식이 있는 경우는 10명이었고 자식이 없는 경우가 6명이었다.

〈표 1〉 빈곤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주거유형	거주형태	자식여부	사례	성별	연령	주거유형	거주형태	자식여부
1	여	82	임대아파트	동거(손자)	1남2녀	9	여	82	임대아파트	동거(1남)	1남
2	여	75	임대아파트	동거(손자)	없음	10	남	82	임대아파트	동거(부부)	2녀
3	여	83	노인의 집	동거	없음	11	여	69	일반주택	독거	1녀
4	여	83	노인의 집	독거	2녀	12	여	78	일반주택	독거	없음
5	여	75	노인의 집	동거	없음	13	여	78	노인의집	동거	3녀
6	남	79	임대아파트	독거	1남1녀	14	남	70	일반주택	동거(부부)	없음
7	여	68	임대아파트	독거	없음	15	여	84	일반주택	독거	1남2녀
8	여	68	일반주택	독거	1남	16	남	79	일반주택	독거	1남1녀

3) 먼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① 참여자 확인은 세 명의 참여자들(8, 14, 15)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분석결과가 이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② 삼각측정은 참여자와 관련된 복지관의 상담일지 및 복지서비스 기록, 현장일지, 면접 등을 통해 자료의 출처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③ 동료보고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질적 연구전문가가 원자료를 읽고 연구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둘째, 적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심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셋째, 의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녹취록, 현장일지, 그리고 NVivo 2 프로그램의 분석과정 및 결과들을 남겨 감사(auditing)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확증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면접 전에 참여자의 노화경험에 대한 선이해를 검토하고, 면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정이나 선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성찰을 행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전문연구자들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2)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서 보듯이 27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표 2〉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 대한 범주, 주제묶음, 주제

범주	주제묶음	주제
죽음으로 향해 가기	몸의 자유를 잃어감	사그라드는 몸
		어쩔 수 없이 병과 함께 살아가기
	죽음을 받아들이기	죽음에 다가감
		자신의 죽음을 홀로 책임지려 함
초라해지는 마음	존재감이 퇴색되어감	쓸모없는 존재
		용기가 줄어듦
		삶이 정체됨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외톨박이	혼자라서 외로움
		소외감
험한 인생살이	지나온 삶의 회한	가치있는 삶을 이루지 못함
		배우지 못한 한스러움
		열심히 살았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함
	없이 사니 고달픔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 버텨감
		영세민이라 괄시받고 기가 죽음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함
		친구관계가 단절됨
		속상해도 참고 견디기
삶의 끈을 지켜 나가기	삶을 지탱해주는 활동들	종교적 믿음으로 마음 다스리기
		삶의 보람인 자원봉사활동
	핏줄이 잘 되기를 바람	자식에게 미안함
		자식걱정, 부모없는 손자걱정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기	알아서 자기 몸 챙기기
		자존심 지키기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소일거리를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기
	내 복으로 받아들이기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함
		내 복대로 내 팔자대로 살기

(1) 죽음으로 향해 가기

'죽음으로 향해 가기'의 범주는 빈곤노인이 노화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쇠퇴와 다가온 죽음을 수용하는 경험을 의미화하고 '몸의 자유를 잃어감'과 '죽음을 받아들이기'의 주제묶음으로 제시한다.

① 몸의 자유를 잃어감

- 사그라드는 몸

> 이제 조금만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숨차고 뭐. 그러니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나가는 마당 아닙니까? (14-3)[4]

> 전에는 뭐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정신이 자꾸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오래 돼서요.(10-4)

70세인 남성참여자 14는 늙어감을 자신의 젊었을 때와 비교하여 신체적 노쇠현상으로 느끼고 이전에 가졌던 힘이나 능력까지도 잃어가는 것으로 경험한다. 82세의 남성참여자 10은 나이가 들수록 정신기능의 쇠퇴로 기억력이 떨어져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들은 육체적 기능의 저하로 생활상의 불편함을 호소한다.

- 어쩔 수 없이 병과 함께 살아가기

>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 다리 아픈 것은 다쳐서 그런 거라. 인자 수술도 못한다고 하재. (12-1)

> 몸이 아프니까 늙었다고 생각하지. 늙었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또 즐겁게 살잖아요. 돈 있고 자식 있고 하면 뭐 즐거울 수도 안 있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늙을수록 더 서럽고, 더 외롭고 그렇지. 딴 거 있는교?(7-3)

참여자 12는 젊었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지러움, 허리와 다리의 만성적인 통증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 그녀는 관절염수술을 고려해 보지만 의료전문가에 의해 수술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아픈 다리의 완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시댁에서 쫓겨나고 유방암수술을 세 번 받은 참여자 7은 "몸이 아프니까 늙었다"고 인식한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 질병이 생기는 것으로 여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빈곤하고 아프고 자식까지 없는 그녀는 자신이 늙을수록 더 힘

4) (14-3)은 참여자의 녹취에 대한 인용방식으로, 괄호안의 표시는 참여자 14의 세 번째 면접에서 인용한 것을 나타낸다.

든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이유는 암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질 좋은 진료를 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의지할 가족이 없어 심리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② 죽음을 받아들이기

- 죽음에 다가감

> 한 2년 전부터... 내가 요게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한 7년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 재작년부터 가만히 내가 지내 나온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많이 늙었구나!'하고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었어요.(6-2)

> 여기 104동 아래 한 사람 죽고 여기 와서 숱하게 죽었어. (침묵 6초) 이사 들어올 적에는 천 년 만년 살 것 같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9-2)

병을 통해 점차적으로 늙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참여자 6은 늙음의 종착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참여자 9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약 16년 동안 거주하면서 같이 지내왔던 주변 이웃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도 이곳에서 맞이하리라는 것을 느낀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주위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불안감 등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으므로(Kalish, 1976)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자신의 죽음을 홀로 책임지려 함

> 남 피해주지 말고 '어째든 조금 더 살아야 될 건데!' 하는 요를 때 가야 돼요. 남들에게 애먹이고 하면 우랄라꼬! 큰일 나요. 우리는 더 합니다. 모두 딸도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찾아오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아무도 없는데, (손을 저으며) 안돼요.(2-2)

> 우리가 원하면, 죽으면 성당 천주교 공동묘지에 갈 수 있어. 그렇고, 화장할려면 화장해서 모시는데가 있고. 그러니깐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라.(3-1)

참여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자신을 돌봐줄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인해 죽음을 혼자 책임지려는 모습과 죽음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 2는 자신이 의지할만한 가족 등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강한 불안감을 보인다. 죽고 난 후 자신의 시신을 책임지고 거두어 줄 가족이 없는 참여자 3은 사후장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자구책으로 개종을 해서라도 자신의 시신이 예(禮)를 갖춘 장례절차를 통해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2) 초라해지는 마음

'초라해지는 마음'의 범주는 참여자들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자아 정체성과 감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미화한다. 여기에서는 2개의 주제묶음인 '존재감이 퇴색되어감'과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외톨박이'를 제시한다.

① 존재감이 퇴색되어감

- 쓸모없는 존재

> 경비반장할 때는 그래도 나이가 64, 65세 되니깐 그때는 빠리빠리했는데 인자는 그것도 못하니 내가 너무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만날 방안에만 들어앉았고 그것만 생각하니깐 그래요.(6-2)

> 내가 못 나서 그렇지. 어째든 내가 못 나서 그렇지. 내가 활동을 못하니 그렇지!(9-2)

참여자들은 노년기 이전부터 지속해 오던 일을 몸이 아파서, 힘이 없어서 등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중단해야 하였다. 일의 중단은 곧바로 소득의 상실로 이어졌고 노후보장제도가 이들에게 사회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사적이전소득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참여자들의 노년의 삶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참여자 9는 늙어서 가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늙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용기가 줄어듦

> 젊을 때는 용기도 있고, 자신만만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 것도 '그것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지금은 겁부터 먼저 나는데. '저걸 어떻게 하겠노? 내가 그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라. 늙으니까. 자신이 안 나는 거라.(15-4)

참여자 15는 용기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으로 파악하고 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늙어서는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 삶이 정체됨

> 나쁘고 좋고 없지 뭐... 없고. 그냥 참말로 이래 나이가 먹어서 맨날 아프다 보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고요.(12-3)

> 세월이 아무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깐 그냥 자꾸 늙는 거지. 뭐, 아이 까지껏 세월아 퍼득퍼득 가라. 가서 죽어도 괜찮다. 한 살이라도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

각은 없고, 막상 죽을려고 하면 죽기 싫을지는 몰라도. (5-2)

앞서 참여자들의 질병은 직업활동을 중단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자 12는 일상생활이 질병에 집중되어 다른 측면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5는 늙었어도 자신을 다독거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지 못해 삶의 의욕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내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늙어감을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외톨박이

- 혼자라서 외로움

섧어, 이래 가만히 종일 누워 있어 보소. 사람 하나 구경하지 못하고 혼자 너무 외로와서...(4-1)

노년기의 원만한 가족관계, 친구 및 이웃관계는 주요한 심리정서적 기반이 된다. 독거노인인 참여자 4는 자녀와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데다가 이웃관계마저 소원해서 외로움을 더 느끼고 있다. 참여자 12가 경험하는 외로움은 "복지회에서 돈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고 와 가 그거 해주고. 내한테 와 가 여름에 덮는 이불을 7월에 내생일이라고 식당에서 주더라고."(12-1)와 처럼 생일이나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공식적 사회관계망을 통해 관심과 배려의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외감

늙으면 싫어해요. 늙은 사람이 어디 가게나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 '늙으면 이렇게 괴로워지고 섭섭하다고 하더니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자꾸 느끼는 거라요.(5-3)

노년기 이전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참여자 5는 주변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늙어서 그러한 일들을 못하게 되자 이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소외감을 느낀다. 그녀는 늙었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노인차별을 "늙으면 싫어해요"라고 표출하고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여긴다.

(3) 험한 인생살이

세 번째 범주인 '험한 인생살이'는 참여자들이 젊은 날에 대한 삶의 한탄과 현재 빈곤하게 살아서 겪는 어려움을 의미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2개의 주제묶음인 '지나온 삶의 회한'과 '없이 사니 고달

픔'을 제시한다.

① 지나온 삶의 회한

- 가치있는 삶을 이루지 못함

나는 살면서도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구나! 또 남을 뭐 도와주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 너무 한심하고... 그래도 살면서는 그렇지요. 아들, 딸을 잘 키워 놨다고 하던지, 벌어서 재산을 장만하고 집이라도 장만하고 이런 것을 해놨다고 하던지...(5-3)

뭐 내 포부는 컸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니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그거는 뭐. (침묵 6초) 상당히 야망이 컸었지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컸겠지만은. 나는 크는 과정에서도 맏아들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내 하나 성공이 전 집안의 성공이고 또 전 형제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예.(14-2)

미혼인 여성참여자 5는 나이만 먹었지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식도 안정된 보금자리도 없고 남을 위해 살지도 못해 사회문화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이룬 것이 없다고 여긴다. 참여자 14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의 관심과 기대를 많이 받았고 농촌에서 도시로 나와 고등교육까지 받았다. 그는 사회경제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처지가 되어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한국사회의 유교문화적 맥락에서 그는 집안의 장자(長子)에게 가지는 역할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자신을 자책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배우지 못한 한스러움

나를 국민학교까지만 가르쳤어도, 학교가 멀어서, 지금 내가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지금 대학생보다 더 머리 잘 쓸꺼야. 학교가 십 리, 이십 리 가야하니깐. 못 가르쳤잖아. 돈도 많았는데... 나는 재산도 한이 안 되고 못 배운 거.(4-2)

내가 아무 것도 안 배워도 머리 하나는 좋아요. 그래 내가 뭐 할 때는 내가 좀 남자가 되어 좀 배웠으면 뭐라도 할건데.[...] 그래도 다문 초등학교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1-2)

여성참여자 4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여자들은 학교 안 가도 된다. 지 이름자만 알고 떡당세기(떡바구니) 안 잊으면 된다"(4-2)는 남성중심적인 유교문화로 배움의 기회가 배제되었다. 배울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 사회에서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 한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참여자 1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어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배울 수 있었는데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러한 사실은 늙었어도 응어리져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참여자들은 가정이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 열심히 살았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함

18살에 시집와서 28살부터 장사를 해서 78살까지 했으니까 52년 했어요. 그 만큼 해서 벌어도 호박씨 까서 한 입에 다 넣어버리고 내 거지 되고 집 한 칸 없고 이렇게 안 사는교...(15-4)

그때는 내가 공장에 나가 24시간을 일하는 데, 낮에 12시간 일하면 저녁에 쉬고, 저녁에 일 들어가면 꼬박 밤새워서 잠도 안 자고 공장생활을 내가 한 30년 넘게 했어. 동생들하고 살아나왔어. 내가 혼자 사니깐 배급주는 거 나와서 영세민으로 지금까지 살아나와요.(3-1)

참여자 15는 00시장에서 52년간 장사를 하면서 경제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가계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의 사업실패로 젊어서 자신이 한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며느리가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해 현재 월세방에서 수급자로 혼자 지내고 있다. 여성참여자 3은 남편을 6.25전쟁으로 여의고 어린 딸도 사망하였다. 그녀는 친정동생들을 의지하고 30년 남짓 힘든 공장생활을 통해 자신의 생계는 책임졌으나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노후보장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현재 빈곤한 것은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노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준비가 부재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② 없이 사니 고달픔

-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 버텨감

만날 감사하다는 것밖에 없지요. 이런 인생이 옛날 같으면 굶어 죽을 건데.[...] 돈 주지, 쌀 주지, 반찬 갖다 주지, 집을 줘서 이렇게 좋은 집에 나만 깨끗하게 하면 얼음알 같이 해서 잘 살 수 있지, 아무 것도 괴로운 것이 없어. 단지 병원을 자주 다니다보니깐 돈이 문제지. 쓸 것도 없고 그 돈을 밥풀처럼 발라서 써야지, 그게 문제지.(4-3)

혼자 있으니깐 어디 가고 싶은데 돈이 드니깐 다 못 가요. 받는 것은 그렇게 쓸 돈이 안 되거든. 손자 옷 사달라고 해서 누가 사준다고 해야 하노? 손자 옷 하나 사주는 것, 사다 먹이는 것도 어렵고 힘이 들어요.(11-2)

참여자 4는 정부로부터 매월 받는 생계급여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한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는 것을 나라의 시혜로 여겨 병원출입 등으로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참여자 11은 생계급여에 맞추어 빠듯한 생활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이나 손자의 선물 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심한 욕구좌절을 느낀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일 뿐이고 그 이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 영세민이라 괄시받고 기가 죽음

내가 지금 비애감을 갖는 것이 형제도 다 돈이 있어야 형제가 있고, 돈 없으면 형제도 취급을 안 한다고. 부모도 마찬가지라예. 부자간에도 자식이 그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찾아오고 뭐 한 번 올 것을 두 번 오고 하지만 내가 아무 것도 없으니 자식들도 둘이나 있어도 와 보지도 안 해요. (6-1)

"동에서 타 먹고 그렇게 할 바에 죽어버리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남들이 사는 거 보기에는 남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16-2)

참여자 6은 늙어 수급자가 되어서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서러움을 호소한다. 신뢰하였던 가족에게 당한 업신여김은 남이 아니라 핏줄로부터 나온 것이라서 그 섭섭함과 서운함의 정도가 더 깊은 것이다. 수급자인 참여자 16이 이웃으로부터 받은 비난과 괄시는 사회적 낙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계급여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낙인을 견뎌내면서도 스스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함

내가 돈도 안 내고 하면 나도 그 사람보기에 미안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아무리 그래도 돈 받고 해주는 사람들에 비해 성의가 좀 부족하다 아니가.(3-3)

이 사람한테 두 번 와 볼 것도 한 번 밖에 안 와 보는 거라. 그게 차별이라 딴 게 없어. 이 사람은 "경과가 어떻습니까?" 영세민 아닌 사람은 "기분은 좋습니까?" 의사라도 이러고 다니는 곳이 있거든. 영세민은 아침 9시에 회진돌 때 들여다보면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게 차별이지. 그 사람은 뭐 영세민인데 싫어가지고 한 번 와 보고 어떤가 보고 그러고 말지.(15-4)

대부분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참여자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는 경험은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이 받는 의료급여의 대가를 정부에서 지불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참여자 3은 본인부담금이 없는 자신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15는 돈 없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횟수도 적고 그 질적인 면에서도 의료진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친구관계가 단절됨

내가 경제적으로 좋고 돈이 좀 있으면 어울리죠, 어울리는데... 내가 돈이 없고 이러니까 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싫어서 안 어울리는 거지. 어울리면 그 사람 것을 얻어먹으면 나도 줘야 되는데 내가 줄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매일 비관만 삼고 이렇게 방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6-3)

늙어서 빈곤하다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노년기 이전에 맺었던 친구관계를 단절시켰다. 친구들을 만나

면 식사 등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참여자들의 생활형편으로는 이러한 만남 자체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대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대인관계의 단절은 집안에만 있으면서 절망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늙어서 빈곤하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이전의 친구관계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을 단절시켜 심리정서적 문제까지도 발생시킨다.

- 속상해도 참고 견디기

> 그냥 입 다물고. "그만큼 너희(집주인)가 못 고쳐주는 것을 내가 다 고쳐서 사는데" 이런 말이 나와도 곧 튀어 나와도 바로 하고 싶어도, 아이고 더러워라. 내가 남의 집에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다 하노?(11-4)

참여자들은 속상하고 어려운 일 등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안으로 삼키고 있었다. 참여자 11은 남의 집에 살고 있지만 방과 관련된 수리를 다 알아서 하고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방세를 다 마련하지 못하여 집주인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참고 있다. 이는 자원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참여자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 참음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삶의 끈을 지켜 나가기

참여자들은 늙어가는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나온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삶의 끈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 범주인 '삶의 끈을 지켜 나가기'는 4개의 주제묶음인 '삶을 지탱해주는 활동들', '핏줄이 잘 되기를 바람',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기', '내 복으로 받아들이기'로 제시한다.

① 삶을 지탱해주는 활동들

- 종교적 믿음으로 마음 다스리기

> 나는 내 인재 우리집을 생각하고 몸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께 갔다오면 마음이 좋죠. 교회만 가면 마음이 좋아요.(10-3)
>
> 레지오하는 단체나 연령모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산행하고 그런 단체들의 모임이 있으니 즐거움이지.(8-1)

종교는 현재 자신의 삶을 지지해주고 보호해 줄 사회적 관계망이 충분하지 않는 참여자들에게 심리정서적 의지처가 된다. 참여자 10은 종교를 가정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주는 원천으로 여기고 현재의 괴로움 등을 종교의 가르침으로 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 8에게 종교는 신앙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사교의 장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통로이다. 이를 통해 종교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최신덕·김모란 역, 1998:

353-354)이 참여자들의 노화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삶의 보람인 자원봉사활동

봉사 그것뿐이예요. 봉사 어짜든동, 통장이 "형님, 나이 많다고 물러설 참이예요?"하니, 내가 "아니(크게), 안 물러선다. 내 아직 정신있는 다음에는 한다. (웃으며) 정신있는 다음에는 한다"했어요. 그래 어제도 오면서 경찰서 갔다가 오면서 통장이 "형님, 어떻할거예요? 할 참이예요, 안 할 참이예요?" 하길래, 내가 "뭐를?"하니, "교통정리 말이예요?"하대. "하지, 교통정리하지, 아직 호각 불 힘은 있으니까" (호탕한 웃음) 그래요. 재미도 있고 사는 것도 그래 살면 되고.(1-2)

참여자들은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 1은 늙은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장애요인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이 힘닿는 데까지 자원봉사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수급자 노인이 공짜를 좋아하고 받기만 한다는 일반인의 고정관념을 전환시켜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② 핏줄이 잘 되기를 바람

- 자식에게 미안함

아들이 안 돌봐주면 못 해요. 모든 것이 다 딸아이가 해 주어야 하지.[...] 구청에서 휠체어를 해 주는데 어디 가는데 병원에 갈 적에는 아들이 해서 내가 타고 가고, 내 혼자는 못하고.(13-1)

하체의 힘이 없어 걷지 못하는 참여자 13은 자식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스러운 존재라 여기고 자식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어서 죽어야지"라는 표현으로 미안함을 표현한다. 한국의 노인세대는 자녀에 대한 지원제공을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로 여기므로(전혜정, 2003) 참여자들은 자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해 줄 것이 없어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 자식걱정, 부모없는 손자걱정

나는 저거 우리 아들 짝 하나 붙여주는 것이 가장 소원이야. 나이가 더 먹으니 더 하네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깐. 마음대로 돼야지.(9-2)

지금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와. 왜 눈물이 나오는가 하면 저기 엄마 없는 아이들 셋을 출가해 놓고 죽어야 되는데...(1-4)

참여자들은 자신보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자식과 손자에 대한 걱정이 많다. 82세인 참여자 9는 미혼인 50세의 장애를 가진 아들과 둘이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장성한 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사후에 장애를 가진 자식을 돌볼 보호자가 없어서 불안감을 보인다. 자식이 일찍 죽어서 손자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 온 참여자 1은 자신이 죽기 전에 손자를 결혼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눈물로 표현한다. 한편 자식과 손자의 결혼은 참여자들에게 대(代)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이므로 혈육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식걱정과 부모가 없는 손자걱정의 공통점은 그 무엇보다도 결혼문제로 나타난다.

③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기

- 알아서 자기 몸 챙기기

> 뭐든지 견딜 만큼 아프고 안 아프면 좋겠고. 매우 아프면 견디지 못하게 아프면 하루에 두 번씩 병원에 간다.(12-1)

> 아침운동한다고 ○○공원을 세 바퀴 돌고 '내가 오늘 저녁에 밥 잘 먹고 죽어야지. 내 아프다고 죽한 그릇 끓어 와서 이것 먹어보라는 사람은 없고, 내 몸 내 몸을 작정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11-1)

몸의 통증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는 참여자 12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지만일시적인 치료효과로 인하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부 매체에서 의료서비스 남용을 지칭하는 '의료쇼핑'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아플 때 직접 도와줄 사람이 거의 부재함으로 자신의 몸을 책임지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 11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한다. 운동방법은 주로 비용이 들지 않는 걷기를 아침에 많이 한다. 따라서 그녀는 운동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혼자인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존심 지키기

> 누가 날 살려주는교? 괜히 눈물 찔찔 흘려가며 다녀봤자 남이 날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약하게 보잖아. 나는 그런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누웠어도 내가 누웠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노? 씻기 싫은 것도 씻고 바르기 싫은 것도 바르고 남 보기에 나쁘지 않게 보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7-2)

참여자 7은 다른 사람에게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모습이나 수급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관심과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냉대라는 것을 겪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이나 몸가짐하고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영세민이라 괄시받고 기가 죽는 현실에서 언행을 조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내가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필요없는데 남한테 조잘조잘 안 떠들고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 것뿐이고 하여튼 내 할 일만 하고 내가 할 것 있으면 꼭 하고 그래.(16-1)

내 인생살이가 70여해 살아봐도 그렇다고 남 애먹이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베풀어 가며 살지는 못하고, 내가 못 사니깐.(2-3)

남성참여자 16은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이 모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자식과 돈에 대해 자랑을 하는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가 된다고 여긴다. 단지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충실히 하는 것에 만족한다. 참여자 2는 식모살이, 공장일 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너무 없이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였다. 참여자들은 남에게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되어 베풀지는 못 하였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한다.

- 소일거리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기

지금도 자꾸 움직거려요. 지금 놀아도 잠시도 발붙이고 방에 있는 성질이 아니라예. 열심히 뛰거든요.[...] 세금계산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불려 다니고 점심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14-1)

살아가는 것은 힘은 들지만은 내 노력해가 또 나를 불러주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한 달에 다섯, 여섯 번이라도 알바 나가는데, 집에 인자 돈은 적지만 일이 있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8-1)

건강한 참여자들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만 소일거리를 찾아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참여자 14는 비록 수급자의 신분으로 살지만 자기가 성실히 노력하면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소일거리를 찾고 있다. 호텔업에서 퇴직한 참여자 8은 이전의 호텔 일을 시간제로 계속 할 수 있어서 힘든 생활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에게 일의 의미는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참여자들은 가난하게 늙어가지만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수동적으로 공짜만 바라기 보다는 스스로 노력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④ 내 복으로 받아들이기

-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함

나는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많이 된다고요.(3-3)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런 집(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사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또 아들도 국민학교 간 것도 있고 국민학교 못 간 것도 있을 때 여기 와서 사는데 그 아들이 나를 따르니 그것만 해도 행복이지.(1-2)

참여자들은 불편한 몸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영구임대아파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손자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일상의 작은 일에 대해 긍정성을 부여하고 삶의 만족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 내 복대로 내 팔자대로 살기

내 복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지. 만족하고 이렇게 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변명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바라면 안 되거든요.(16-1)

남들같이 남편하고도 못 살고 이때까지도 남편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마 언제부터 없잖아, 남편도 없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속상해서 못 살아요. 뭐, 내 팔자가 그러려니 생각하고 사니깐 살지, 웃고 살지.(2-3)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살아나오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내 복과 내 팔자로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기위로와 만족을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복과 팔자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게 타고난다고 여기고 자신이 타고난 복이나 팔자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를 제시해보면, 이들은 신체적 쇠약과 질병으로 몸의 자유를 잃어가고 삶의 가까이에 있는 죽음을 받아들여 죽음으로 향하는 자신을 찾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이 퇴색되어가면서 의지할 곳 없는 신세로 초라해지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며, 지나온 삶의 회한을 느끼고 지금의 삶에서 없이 살아 고달픔에 험한 인생살이를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노인은 종교적 믿음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삶을 지탱하고, 내 핏줄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힘들지만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내 복으로 받아들이면서 늙어간다. 따라서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을지언정 제 힘으로 살아가기”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늙어가는 과정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빈곤노인의 시각으로부터 살아 있는 노화경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기준표본추출을 통해 총 16명이 선정되었고, 자료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절차에 따라 질적 자료 분석소프트웨어인 NVivo 2를 활용하였다. 이에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는 27개의 주제, 10개의 주제묶음, 4개의 범주로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서 발견된 특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노인은 누군가에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늙어가고 있었다. 이는 빈곤노인이 경제력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으로 늙어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결과이다. 빈곤노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병약하며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해체된 경우가 많아 신체적, 사회심리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받을지라도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부터 죽고 난 후의 장례에 이르기까지 삶을 스스로 돌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중 남의 도움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Fisher, 1995; Fisher and Specht, 1999)과 유사하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서의 독립성은 이들이 의존적이라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늙어가는 과정에서 거친 자신 삶을 내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위안을 삼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 복으로 받아들이기'는 빈곤하게 늙어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체념한다기 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순응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서, 혼자 거동할 수 있어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서 등과 같은 삶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냈다. 내 복대로 내 팔자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생활태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빈곤하게 늙어가는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거나 재평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긍정성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김경연・정여진, 2006; Freund and Baltes, 1998)이고, 빈곤노인이 긍정적 사고를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많이 응답한다는 연구결과(김경연・정여진, 2006)와 유사하다.

셋째, 빈곤노인의 생계급여는 감사의 대상이지만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 겨우 먹고 사는 생활만 허용되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늙어서 빈곤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겨 생계비를 정부에서 주는 시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온정주의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빈곤노인에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빈곤노인은 죽음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쇠약, 질병 등을 통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거동할 수 있을 때 죽고 싶고, 죽음과정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자신도 고통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였다. 비수급자 노인들도 이와 같은 죽음(이지영·이가옥, 2004)을 원하지만 참여자들은 아프면 자신을 돌봐 줄 가족이 대부분 없고 의료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한 요청이라 여겨진다. 노인에게 죽음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질병이나 고통이라는 점(최외선, 2007)에서, 참여자들은 죽음불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맞아들일 실제적인 준비를 한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비빈곤노인과 비교해서 노화의 공통된 경험으로 신체적 쇠약, 외로움, 소외감, 가치있는 삶을 이루지 못함 등이 발견(김순이, 1998; 김애리, 1998)되었다. 그러나 빈곤노인의 이러한 노화경험이 비빈곤노인에 비해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시대를 살았는 노인이기 때문에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참여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 건강, 열악한 경제사정, 가족관계의 단절 및 해체 등 복합요인들로 인해 그 경험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여섯째, 한국문화적 맥락에서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을 제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장자(長子)로서 집안의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수급자 신분으로 살고 있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해 한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代)를 잇는 핏줄이 잘 되기를 소망하였다. 이러한 노화경험은 家 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유교문화적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유교적 가족주의는 부계혈연의 배타성을 가지고 개인의 존재보다 관계 속의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적 인간관계가 사회적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나타난다(백지은, 2006). 유교문화적 맥락의 노화경험들은 빈곤노인의 삶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을 반영한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이들이 가진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감소시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복지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노인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활동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인식과 소외감도 해소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역할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노인교육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은 빈곤노인이 교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사회복지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복지조직은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적절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유급 자원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저축하여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지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빈곤노인을 위한 노인교육이 필요하다. 노인교육은 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활동과정에서 인간관계도 형성되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여성참여자들의 배우지 못한 한스러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에 노인교육을 하는 기관들은 많지만 빈곤노인은 경제

사정이나 정보력의 부족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빈곤노인이 참여하는 노인교육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해주거나 이들과 접촉이 빈번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노인교육에 관한 설명 및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빈곤노인의 노인교육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복지권에 근거하여 빈곤노인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복지권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된 소외집단에게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자원분배의 불평등을 줄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복지권의 실현을 위한 빈곤노인복지정책은 빈곤노인을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겪은 부정적인 노화경험을 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의식주 이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최소한의 생존비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친밀한 가족관계도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및 이웃관계도 미약하여 혼자라고 여기는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복지 관련기관들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느껴 심리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행하는 재가복지서비스에서 말벗서비스 등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이들이 가지는 외로움 등을 일정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활동을 통해서도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유지하여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이나 노인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빈곤노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죽음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참여자들은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하기 어렵고 자신을 돌봐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름다운 죽음(well-dying)'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죽음준비교육의 목적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준비교육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시작단계라서 빈곤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다섯째, 빈곤노인복지정책의 메뉴얼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산재되어 있는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빈곤노인에게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빈곤노인이 복지욕구가 있을 때 관련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도 빈곤노인에 관련된 복지서비스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빈곤노인복지정책의 메뉴얼은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므로 빈곤노인과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연 · 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탐색”. 『노인복지연구』 34: 31-54.

김기태 · 박봉길. 1998.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일반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노인복지연구』 1(1): 57-83.

김미혜 · 신경림 · 강미선 · 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김미혜 · 신경림 · 최혜경 · 강미선.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의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김분한 · 김금자 · 박인숙 · 이금재 · 김진경 · 홍정주 · 이미향 · 김영희 · 유인영 ·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간호학회지, 29(6): 1208-1220.

김순이. 1998. “한국노인의 노화체험”. 『성인간호학회지』 10(2): 234-244.

김애리. 1998. “노화지각에 관한 경험 분석”. 『중앙의학』 63(7): 379-389.

김주성. 1999. “영세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1(2): 227-239.

김태현 · 김동배 · 김미혜 · 이영진 · 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박영란. 2004. “빈곤의 여성화: ‘신빈곤’시대 여성과 탈빈곤정책의 뉴패러다임”. 『아세아연구』 47(2): 61-95.

백지은. 2006.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비교 문화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백학영. 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5-39.

성혜영 · 조희선. 2005.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심문숙. 2007. “저소득독거노인의 생활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2): 171-181.

이영희. 1993. “현상학적 연구방법”. 최영희 편. 『질적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pp. 269-341.

이지영 · 이가옥. 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4(2): 193-215.

장경은. 2008. “빈곤노인의 노화경험: 질적 연구를 통한 빈곤노인복지정책의 탐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전영길 역. 1995. 『현상학 연구』. Shnha, D. 1968. *Studies in Phenomenology*. 서울: 한국문화사.

전혜정. 2003. “노년기 비공식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4): 143-161.

정경희 · 한경혜 · 김정석 · 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조흥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 공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 다섯가지전통』.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최신덕 · 김모란 공역. 1998. 『노년사회학』. Harrris, D. K. *Sociology of Aging*. 서울: 하나출판사.

최외선. 2007.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4): 755-773.

최혜경 · 백지은 · 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23(2): 1-10.
최희경. 2004. "공공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2): 237-259.
최희경. 2005. "빈곤 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형성분석".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통계청. 2008. 『2008 고령자통계』.
홍상희·박혜영 공역. 2002. 『노년』. Beauvoir. S. 1970. *La Vieillesse*. 서울: 책세상.
Baltes, P. B., and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pp. 1-34. in P. B. Baltes and M. M. Baltes(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rren, J. E. 1964. *The psychology of ag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Blakemore, K. 1997. "From minorities to majorities: perspectives on culture, ethnicity and aging in British gerontology". pp. 27-38. in A. Jamieson, S. Harper, and C. Victor. *Critical approaches to ageing and later life*. Buckingham: Open University.
Clarke, L. H., Griffin, M. and PACC Research Team. 2008. "Failing bodies: body image and multiple chronic conditions in later lif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8*(8): 1084-1095.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48-71. in R. Valle and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rowther, M. R., Parke, M. W., Achenbaum, W. A., Larimore, W. L., and Koenig, H. 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5): 613-620.
Fisher, B. J. 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3): 239-250.
Fisher, B. J. and Specht, D. 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Th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Freund, A. M. and Baltes, P. B. 1998.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Psychology and Aging* 13(4): 531-543.
Holstein, M. B. and Minkler, M. 2003.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43(6): 787-796.
Kalish, R. A. 1976. "Death and dying in a social context". in R. H.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Riley, M. W. 1998. "Letters to editor". *The Gerontologist* 38(2): 151.
Rowe, J. W. and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Torres, S. 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2.
Willigen, J. and Lewis, D. C. 2006. "Culture as the Context of Aging". in Hyunsook Yoon and Jon Hendricks. *Handbook of Asian Aging*. Amityville,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of the Poor Elderly

Chang, Kyung-E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of the poor elderly and to identify suitable welfare policies on their behalf. For this purpose, I selected 16 participants from the criterion sampling of the impoverished elderly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fter which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of Cloaizzi(1978). As a result, 27 themes, 10 clusters of themes, and 4 categories were pinpointed. The 4 categories are 'Facing death,' 'Becoming despondent in heart and mind,' 'Living a hard life,' and 'Going with the flow of life.' By integrating the meanings of these findings, the essence of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of the poor elderly was to be, 'Self-sufficiency despite receiving welfare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of the poor elderly was revealed as not being entirely based around dependency but rather around strongly independent and positive life attitudes. But also found were difficulties due to lack of living expenses required for survival, deep death anxieties, and life attitudes in the context of Confucian culture. Based on the study results above, I presented welfare policies for the poor elderly as outlined: implementation of social activities in order to encourage independence and positivity among the poor elderly, actualization of payment that meets at least the minimum costs of living, consolidation of psychological-emotional assistance, implementation of death-related education programs, and the compilation of a welfare policy manual for the impoverished elderly.

Key words: poor elderly, aging, phenomenological approach,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poor elderly.

〔논문 접수일 : 09. 08. 06, 심사일: 09. 08. 25, 게재 확정일 : 09. 09. 27〕